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의사소통의 무용
	1. 소통 미디어로서의 무용
	2. 역사적 몸과 텍스트 · 커뮤니티댄스
	III. 커뮤니티댄스의 의미 작용
	1. 커뮤니티댄스의 공동체성
	2. 커뮤니티댄스의 소통 네트워크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15.07.30.

논문심사일 : 2015.08.17.

게재확정일 : 2015.09.01.

Han, Hea-ree
Kyungsoong University

Community dance is a performance art form that crosses over genre, and understanding it from a cultural viewpoint is finding meaning and structure of dance that exists as an ideological text. A person is able to connect personal senses with social sentiments and find the meaning and effect in historically hidden structure only after perceiving the dance as a communication medium of transdisciplinary, genre-crossover and cultural practice behavior. Community dance is not an instrument that sets standardized problems seeking hackneyed answers of formality, nor is it an instrument that offers response or results to presented problems. Rather, it takes those problems sets apart and embraces the communal character of the cultural practice behavior that is becoming more standardized and institutionalized.

This study has established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effects of community dance as a communication medium and come to the following conclusions, with regarding to identity and signification.

In the center of the structure where community dance creates meaning lies a human body, and as such, it is a structure that expresses thoughts and will of practice through movement. Accordingly, community dance functions as a cultural text and communication medium.

The communication system of community dance prioritizes the equality of what is being communicated rather than the people doing the communicating. If the equality of communicating people implies unidirectional change or learning, the equality of communication itself denotes a system of dynamic networks in symmetry.

Community dance is not a text of enigma with hidden meanings but is that of a complex semantic structure. Therefore, instead of exploiting it as a tool that brings fulfillment or effect, it can be better applied to discovering the process of hidden signification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Community dance is a space for minor discourse found in discord that connects decisions of the past and the happenings of now and desire and information, and the embodiment of communal character of this age.

Applying community dance as a communication medium is a process that creates minor discourse in conflicting relationship and the meaning of communal character of this age.

key words > community dance, communication medium, cultural text, minor discourse, networks, literacy

주요어 >> 커뮤니티댄스, 소통 미디어, 문화텍스트, 소수 담론, 네트워크, 리터러시

I. 서론

커뮤니티댄스는 그 사용 맥락에 따라 논리의 일치를 찾을 수 없고, 때로는 모순되는 것들로 구성되기도 하는 비어있는 개념적 범주의 무용이다.

예술에 대한 통념이 해체되었다¹⁾는 Danto A.의 주장이 예술에 대한 보편적 인식의 부정이듯이, 커뮤니티댄스의 개념은 이전의 예술/오락무용, 민속·민족/대중무용, 무대·감상/참여·체험무용 등과 같은 분류방식으로 정의되어지는 무용이 아니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 연구는 예술의 개별 장르로 보다는, 문화인류학적 미디어론에서 의사소통의 미디어로 즉,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의 의미작용을 탐색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Hall S.이 제기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정의는 특정집단에 의해 부각되는 조직적인 사고체계라는 것이었고, 그와 다른 이론에서는 이데올로기를 실제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문화텍스트로 설명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단순히 관념들의 집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실천행위로 보아야한다는 Althusser L.의 논점들에서, 이데올로기와 문화 그리고 이미지와 기호의 의미작용은 개념적 변화이기 보다는 주체적 시각에 따른 것으로, 결국 어떤 관계(net-work)에서 인지에 따라 다른 의미작용을 한다는 논리로 집약됨으로, 용어 보다는 개념 그리고 사고의 틀(frame) 보다는 체제(regime), 적용 보다는 발견, 의미 보다는 의미 작용에 관심이 기울어진 차이의 동시대성²⁾을 내포한 탈(혹은 초)학문(transdisciplinary)적 연구이다.

문화라는 개념에는 이미 ‘의미의 실천행위’, ‘의미의 생산’, ‘의미 생산의 근거’ 등이 내포되어 있고 그러한 문화에서 텍스트란 소통을 시도하는 모든 산물 즉, 나름의 질서에 의해 이루어진 기호학적인 체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다. 학문적 사유에서 각 예술 장르들의 문화 텍스트로의 전이는 16세기 계몽주의 이후 모더니즘이 사회에서 규범화, 아카데미화 되어버린 20세기 중반까지 언어와 문자를 매개로 한 예술 감상 및 비평과의 연계선 상에 있다.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특성을 문화에서 이데올로기적이라고 한다면 문화 텍스트 즉, 이데올로기로서의 무용은 개별적 사고(생활)방식이 시대 혹은 집단의 특정 사고(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무용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화에서 의미작용을 하는 무용을 커뮤니티댄스라 한다. 즉, 커뮤니티댄스는 예전의 민속 혹은 민족무용이나 상상적 공동체들

1) Danto, A.(1997) 『After the end of art』

2) 본문 Ⅲ. 2.에서 설명되는 용어.

의 집단무용의 전위轉位가 아니며, 동일한 공간속의 다른 무용으로 이전移轉된 것도 아니다.

커뮤니티댄스는 산업화, 도시화 이후의 문화 텍스트로, 포스트모더니즘, 후기구조주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³⁾ 등의 서구 지식과, Bhabha, Homi K. (1994:27)의 이론처럼 문화의 문제가 어떤 넘어선 것의 영역이라는 동시대 문화 연구에서, 무용의 위치에 대한 **Literacy**⁴⁾가 우리 시대의 무용 연구라는 또 다른 시각을 제기 하였다.

Fanon, F., Lyotard J. F., Geertz C., Lacan J., Kristeva J., Foucault M. 등의 초국가적(transnational), 초영토적(extra-territorial) 사유가, 결국 탈식민지적 조건의 패러다임인 낯설음(unhomely)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고 할 때,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적 생존의 행동 속에서 생성되는 무용이다. 따라서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후 생성된 커뮤니티댄스는 인식의 대상이기보다는 작용에서 비로소 의미가 생성되는 무용이다. 그래서 커뮤니티댄스는 무용의 기능이나 의도, 혹은 총체성 지향의 해석학 보다는 의미가 작용하는 체제 또는, 대화(혹은 소통)의 방식으로 사회에 관여하며, 성취나 해결 보다는 과정과 경계적 사유⁵⁾에서 발생하는 키 워드-상상, 추상 그리고 성찰, 명상 또는 몰입 등-로 사회 논쟁에 참여한다.

커뮤니티댄스는 결국 고급(예술)/ 저급(오락)무용을 재 위치 시키고, 우리/ 그들의 문제에서 “지구상의 우리 모두가 동등하다는 이유가 바로 우리 모두는 각기 다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 (Mignolo, Walter D. 2000, 역, 2013:511)를 전제로, 주체의 시각을 너머서려는 요구에 대한 응답적 행위이다.

본 연구는 미디어론Mediology과 Mills, John S.의 사회학적 상상력에 대한 개념 그리고 예술체제에 대한 Rancière, J.의 이론과 문화인류학적 미디어의 개념을 제시한 Fauser, M.의 연구들을 이론적 배경으로, 커뮤니티댄스의 소통미디어로의 작용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결국, 문화인류학적 미디어론에서 이데올로기의 텍스트로 무용의 의미 작용을 탐구하는 본 연구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텍스트의 소통 체제는 커뮤니티댄스의 의미 작용 방식과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3) 그것이 이 세계를 변화 시킨다는 혁명적 이론을 모은 체제라는 정의에서 라면 탈脫 혹은 후기 post의 뜻은 이미 내포된 것이라고 볼 때

4) 본문 Ⅲ. 3.에 개념 설명.

5) 양분화되거나 위계질서를 가진 충격이나 흡수, 적용 등과의 반대 개념으로의 경계적 혹은 사이적 사유.

Ⅱ. 의사소통으로서의 무용

문화인류학적인 미디어에 따르자면 미디어는 물질적 조건에 따라 활성화될 수 있는 수행적 잠재력을 가진 수용가능한 미적 연출이다...상상과 실제효과의 상호관계 그것이 미디어의 목표이다...미디어는 특정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형식이다...미디어 환경의 역사는 개별 예술들의 역사를 대신해야 한다(Fausser, M., 2003, 역, 2008:104,103,102).

1. 소통 미디어로서의 무용

커뮤니티댄스는 삶에서 작용하는 무용이다, 즉, 커뮤니티댄스 연구(혹은 Literacy)는 이미 있는(존재하는) 무용의 의미(작품, 혹은 무용 행위)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생성하는 일정한 체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체제 안에서 생성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정신적 힘, 즉 의미 생성의 근원을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개인의 정신적 자질을 활용하는 것이며, 상상(혹은 창의성)의 발현으로 과정을 읽어내는 것⁶⁾이다.

용어보다 중요한 것이 개념이라고 한다면, 결국 커뮤니티댄스는 사회와 삶 그리고 문화, 예술, 학문의 그 어떤 영역에서도, 연구 혹은 이해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체제로 표명되지 못한 의미들, 한 번도 틀(frame) 안에 존재 한 적 없는 잠재적 관계(네트워크)에서 작용하는 무용이다.

커뮤니티댄스가 의미를 생성하는 체제의 중심에 몸이 있고 결국, 몸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무용은 사유 혹은 실천 의지가 행위를 통해 표명되는 체제임으로, 이때의 무용은 대화를 시도하는 문화 텍스트로 의사소통의 미디어로 작용한다.

자체적인 논리와 엄밀성을 내포한 재현 체계가 이데올로기라는 Marx, K의 해석은 이미지, 신화, 생각, 개념 등을 표현이라기보다는 실천 행위로 해석한 것이었다. 그 후 Althusser, L.⁷⁾는 이데올로기가 이제 더 이상 사상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교육, 조직된 종교, 가족, 조직된 정치, 미디어나 문화산업 등-의 행위와 생산을 통해 재생산된 살아있는 육체적 행위로 인식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때의 재현(representation)

⁶⁾ literacy를 의미하며 reading과 구별하여 쓴다.

⁷⁾ 이하의 내용은 Story, J.(1993, 역, 1999:170)에서 재인용.

은 대표, 표현, 재현의 뜻이 섞여진 포괄적 의미이지만, 대상이나 생각을 기호로 대치하여 기호가 대상의 의미를 표현하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 용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구 예술론에서 재현과 모방은 관념을 근거로하여 학문적 이론들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미메시스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배경으로 Rancière, J.(2000, 역,2008:28)는 “행하고, 보고, 판단하는 방식들을 조직하는 것이 재현 미메시스의 개념이므로 나는 그것을 재현적(representatif)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한다. 랑시에르가 재현에 대한 이전의 개념을 재 언급하는 이유는, 또 다른 개념의 재현을 말하려는 것이다. 미메시스(재현)가 예전의 개념에서 중요 부분이었던 기법(기술, 테크닉)에 앞서, 가시성의 체제라는 주장이 그것인데, Cassirer, E.(1994)⁸⁾의 신화와 예술, 언어와 학문이 현실에 대한 모방이라기보다는 정신작용 즉, 관념과정의 거대한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보완적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탈 장르적인 후기 예술 경향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유래가 다른 상징(혹은 재현)의 원칙들을 융합한 것이었다. 그래서 초학문성에 바탕을 둔 혼합적 교양교육(Literacy education)⁹⁾에서 커뮤니티댄스는 프로그램(내용)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초학문적, 탈개념적인 것들은 체제 혹은 (개인적, 사회적 혹은 제도적)혁신의 과정에서 표면화되는 성향이 있음으로서 커뮤니티댄스는 의사 표현과 의사소통 방식 확장의 의미가 있다.

Huntington, S.(1993:21)이 가장 “중요한 국가집단은 이제 더 이상 냉전의 세 블록이 아니라 일곱 내지 여덟 개의 세계 주요 문명-서구,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이슬람, 중국, 힌두 정교회, 불교, 일본-들이다”라고 한 후, Mignolo, Walter D.(2000, 역, 2013:504)는 21세기 국가체제는 적어도 여섯 개의 강국 -유럽,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아마도 중간급 국가와 소수국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 이전과는 다른 체제의 무용이 등장한 배경에는 문화(혹은 문명)의 개념이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동일한 목표, 기억, 언어, 신념들을 가진 사람들의 독립적 공간 즉, 이전의 원시 공동체나, 민족, 국가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는 공동체들의 동질성에 대한 개념의 변경이 있다. 그러므로 커뮤니티댄스를 커뮤니티와 댄스의 혼합 용어로, 혹은 어떤 새로운 무용 양식이나 장르로 규정하려할 때의 혼선은 용어의 정의를 새롭게 하기 보다는, 무용과 세계의 관계(네트워크)에서 의미 작용 체제의 탐색으로, 그리고 무용의 예술 장르적 개별사로 보다는, 기억과 기록 미디어의 위치에서 무용을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로 탐구하는 연구 시각의 변경으로 해결해야 한다.

⁸⁾ Fauser, M(2003, 역, 2008: 42)에서 재인용.

⁹⁾ Hoggart, R.(1990), 『The uses of literacy』가 교양의 활용으로 번역되는 것에 바탕을 둔 것임.

2. 역사적 몸과 문화 텍스트 · 커뮤니티댄스

역사적 몸과 역사가 새겨진 몸이 만드는 기호들은 국가나 민족을 넘어선 생존 전략으로서의 문화 전승으로 읽어진다. 생존 전략으로서의 문화는 권위적 과거와 현재의 연속성을 조건으로 하는 국민적 혹은 민족적 문화와 같이 질서화된 상징적 예술을 넘어선, 사회적 생존의 행동 속에서 생산되는 문화를 말한다. 따라서 생존 전략으로서의 문화는 전이(translational)적인 특성을 지닌다.

예술에서의 무용은 즐거움과 계몽 그리고 자유의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생존 전략의 문화에서 작용하는 공동체 무용은 불안정하고 방해적인 생존과 보충성의 실천 행위로도 존재한다. 문화에서 이러한 언표작용으로서의 무용의 작용과 그 제도화 과정은 역사적인 몸으로 세계와 대화하는 소통 체제로 나타난다.

인식의 대상인 무용이 기호들(문화적 요소)의 설명 체계에서 해석적 순환 속에 갇히게 되는 반면, 소통 미디어로서의 무용은 문화적 대립성과 절합絶合성을 치환置換과 재배열로 읽어내는 전이적 작용의 무용이다.

문화적 차이는 그것이 지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든, 민족이나 국가와 같은 상상의 공동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하고 사회적 위기의 지점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제기되는 정체성의 문제가 곧, 논쟁적 성격을 띄게 됨으로 그것이 소수 담론이 된다. 그리고 그 소수 담론이 공동체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학문의 전문화는 학문의 경계보다는 중요한 문제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Charle W. Mills, 1959, 역, 2004: 179)는 Mills의 사회학적 시각은, 무용을 포함한 예술과 문화가 각각의 분야의 개별적 장르사에서 보다, 기록과 기억의 미디어에서 문화 텍스트로 작용하는데 주목하는 연구 성향을 확산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시각이 변경된 바탕에는 과거 지배적이었던 근대적 패러다임 중 완고했던 것 중 하나인 인과론에 대한 비평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러한 인과 관계가 현실에는 없다는 것입니다”(신영복, 2015: 50)와 같은 자각을 표명하는 이론가 및 학자들은, 보편성으로의 분류를 통한 문화의 요소에 대한 통일된 의미 확립에는 지배적이고, 비대칭적인 일종의 권력이 내재(혹은 은폐)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문화에서 이데올로기의 작용은 종이에 기록되는 기호 보다는 몸에 새겨진 기호와 기억 그리고 언어에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몸에 새겨진

기호와 기억 그리고 이미지와 기호를 통해 생성되는 소통 미디어로서 무용을 문화 텍스트라고 한다면, 무용에서의 몸은 기억과 기호가 새겨진 역사적이고 전승적인 표현체이다.

정체성은 본질에 있어서 객관적인 존재가 아니라 생성(being)입니다. 관계의 조직은 존재를 생성으로 탄생 시키는 창조적 실천입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가 조직됨으로써 생성됩니다 (신영복, 2015:198).

정체성은 한계성의 위치에서 주장되거나 혹은 중심에 이르려는 시도에서 요구된다. 이 두가지 모두의 의미에서 정체성은 중심외적인 것이다(Bhabha, Homi, K., 1994, 역, 2002:378).

관계 조직에서 존재들의 정체성도 생성되는 것이므로 유기적이지만, 그것이 의미 작용을 하는 것은 읽혀질 때이다. 그러나 주체나 원본이 존재하는 일방적인 코드로 기호를 해석하는 경직된 체계에서는 그 어떤 텍스트라 할지라도,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거나 확산할 수는 있다 해도, 각각의 관계 조직에서 생성되는 의미들을 읽어낼 수는 없다.

의미가 은폐되었다는 것은, 찾아내지 못한 의미가 숨어있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숨은 체제를 발견할 정신적 자질이 결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의 정신적 자질은 인간의 사회 능력(혹은 사회성)으로 명명된 그 어떤 가치 기준으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의미 부여의 요소인 성찰(혹은 관찰, 몰입, 명상), 자존감, 상상, 추상 등의 작용이다. 이제, 문화 텍스트 읽기는 어떤 소통 미디어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체제에서의 작용인지가 중요해졌다.

본 연구에서의 커뮤니티댄스도 결국 체제로 존재하는 문화 텍스트이다. 그리고 의사소통 미디어의 체제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역사적 기호가 새겨진 몸으로 표현된 이데올로기적 텍스트이다.

Ⅲ. 커뮤니티댄스의 의미 작용

그(현대인)들은 새로운 사고방식을 체득하여 가치의 전환을 경험한다. 자기성찰과 감수성으로 사회과학의 문화적인 의미를 깨닫는다.... 가장 생산적인 구별은 환경에 대한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에 관한 공공문제의 구별일 것이다.

예술이 오늘날 인간이 겪는 불안과 무관심 그리고 거기서 초래되는 제어 불가능한 불행을 극복하려면 대항해야 하는 공공문제와 개인문제를 포괄하는 문제들로 파악하지 않고 또 파악하지 못한다. 실제로 예술가는 이런 노력을 잘하지 않는다(Mills, Charlie W, 1959, 역, 2004: 21, 33).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잡하고, 또 많은 개인 문제들과 대규모의 공공문제들을 어떤 **유일한 코드¹⁰⁾**와, 단 **하나의 관점¹¹⁾**에서만 읽는 것(reading), 또는 짧은 기간 사이에 새로운 것들로 바뀌는 지적 유행들-그리스·로마 신화와 유럽 중심의 전설과 설화에 기반을 둔 각종 콤플렉스와 신드롬들-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들의 중대성을 회피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본 커뮤니티댄스의 과제는, 행복의 반대 개념인 현대인들의 불안과 무관심의 요소를 밝히는 것이다.

1. 커뮤니티댄스의 공동체성

전승된 가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불안 그 자체가 개인 문제이며, 무관심 그 자체가 공공문제라고 제시한 Mills(1959, 역, 2004: 26)에게 있어서, 불안은 자신이 품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위협에서 오는 것이며, 무관심이란 소중한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위협도 느끼지 않는 경우로 해석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역사에 대한 관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관념(이데올로기)이 절정기이다. 그리고 개인적 생애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본성과 생애 주기에 따른 변모에 영향을 준 제약과 그것의 바탕이 된 관념에서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다.

¹⁰⁾ 지배적이고 권력적인 위계질서에서 위치를 갖게된 언어나 해석법 또는 감상 체계 등의 교육되어진 것들.

¹¹⁾ 주체가 있는 즉, 시각이 하나인 경우.

억압된 개체는 그 위치를 적극적인 집단적 위치로 변형시킨다. 재휴적인 연대는 미학, 환상, 경제학, 몸정치학 영역의 양가적인 접합들을 통해 형성된다. 그것은 상호 규율성으로서의 반란적인 상호주관성이며 근대성의 공식적인 동시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상성이기도 하다(Bhabha, Homi K., 1994, 역, 2002: 483).

무용이 의사표현(이데올로기)으로 문화에 존재할 때, 의사표현의 확장으로서 소통의 체제에서 작용하는 것이 커뮤니티댄스이다. 살아있는 문화라고도 하는 문화적 실천 행위는 특정한 생활 방식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휴가나 축제 그리고 특정 계층-젊은이, 청소년, 학생, 직업 군.. 등-의 문화를 말하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내포되어 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유기적 공동체와 그것이 구현하는 살아있는 문화이다. 민속음악, 민속춤, 오두막집과 수공예품들은 어떤 더 큰 것을 표현한 것이며 이것은 자연적 환경과 한 해의 리듬에 맞춰 기억할 수 없을 때 부터의 경험에서 자라난 경험의 예술이며 상호관계의 약속, 서로의 반응에 적절히 맞추어 가는 적응, 사회적 예술을 포함하는 질서있고 정돈된 삶의 방식이다(Leavis, F. R. & Thomson, D., 1977 :1-2).¹²⁾

유기적 공동체의 일상인 문화가 건강한 삶의 지속적인 기반이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보상과 수동적 위안을 위해 대량문화로 관심을 돌리는 지금의 현실을, 예전의 유기적 공동체 사회로 되돌릴 수도 없지만, 지금의 삶의 환경을 거부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금의 문화가 만족감을 주지 못하고 삶을 더욱 빈곤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해악적인 요소를 제거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사람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완성한 사회구조 속에서의 문화에 대한 비판과 연구는 대량문화, 대중문화로 표현되고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보상과 위안의 키워드가 숨어 있다. Hoggart, R.(1990)¹³⁾는 사람들의 도덕적 쇠락보다 문화가 도덕적 진지함을 상실해 가는 것, 그리고 취향의 저질화 보다는 취향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취향이 무너지고 소멸될 것에 대한 것들의 논쟁을 『교양의 효용 the use of literacy, 1993』에서 다루었다. 또한 유사한 맥락에서 Mills(1959, 역, 2004:50, 230)는 문화적 의미를 깨닫는 것은 자기 성찰과 감수성이라고 주장한다. 그 때의 감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감수성은 자기에 관한 인식을 분명히 하는 고대적 의미의 일종의 정신요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사고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련될 경우 논쟁이라고 부르며, 자아와의 토론에 대한 모든 기술들의 함양이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Mills는 개인을 자기 교육적(self educating)인 인간으로 그리고 자기 계발적(self cultivating)인 공중을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이라는 이론을 펼쳤다.

¹²⁾ 박묘(역, 1999:51)의 번역문 인용.

¹³⁾ Hoggart, R.(1990), The uses of literacy, Story, J.(1993, 역, 1999: 72-80)에서 재 인용.

성찰 그리고 감수성과 같은 정신적 자질은 궁극에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현실을 보다 큰 공동체-사회, 국가, 지구 등-적 현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상상의 발현으로 기능한다. 커뮤니티댄스는 비 개인적이고 또, 지리적으로 멀고, 비가시적인 관계들에서 발생하는 변환을, 가장 친밀한 속성으로 연계하고, 관계를 재 배치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문화적 실천 행위인 커뮤니티댄스의 속성인 정신적 능력이자 공감 능력으로, 커뮤니티댄스의 공동체적 상상 또는 집단적 창의성으로 불리워진다.

공동체가 하는 무용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내적 요소로 하는 커뮤니티댄스는 정형화된 틀에서 주어진 대답들을 요구하는 문제 설정(problematic)이나 문제제기에 대하여 대답이나 효과를 제안하는 도구로서의 무용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 설정을 해체하여 정형화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문화적 실천행위들 이면에 숨겨진 긴장과, 파편화, 부재 그리고 침묵에 대해 묻는 사유를 텍스트화 하는 무용이다. 결국, 커뮤니티댄스의 공동체적 상상이란 하나의 시각에서 또 다른 시각으로의 이동이 자유로운 생산적인 자아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적 상상이 작용하는 커뮤니티댄스는 우리 개인을 또 다른 공동체속 개인의 입장이 되어보게 하는 체제의 무용이다.

...무슨 이유로 인간 정신에 내재하는 공감능력이 밖으로 확장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한가지 답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우리를 끌어다 놓는 매체입니다(S. Pinker, 2010, 역, 2013:51).

문화인류학적 미디어론에서 커뮤니티댄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수께끼로서의 텍스트가 아니라 복합적 의미구조를 지닌 텍스트로서, 무엇을 찾아내거나 제시하는 성취나 효과의 도구로 작용하기 보다는, 숨겨지고 은폐되어 한번도 발견된 적 없는 것들의 의미 작용 과정을 각각의 위치에서 발견하여 읽어지게 하는 체제에서 작용하는 소통 미디어이다.

2. 커뮤니티댄스의 소통 네트워크

불온한 것은 우리를 끊임없이 소외시키는 소외구조 그 자체입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음모(에피쿠로스는 우정이란 음모라고 합니다)는 든든한 공감의 진지입니다. 소외 구조에 저항하는 인간적 소통疏通입니다. 글자 그대로 소외(疏)를 극복(通)하는 것입니다(신영복, 2015:14).

커뮤니티댄스에서 소통의 내용과 방법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명제는 첫 번째로, 소외는 소외의 본질을 억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상상작용인 커뮤니티댄스는 문화의 동시대성-시간적, 사회적 차이-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는 체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커뮤니티댄스는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통로, 즉 의사소통의 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사소통 미디어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소통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문화적 의미작용체계들에 의해 이미 야기되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논쟁과의 유동상태에서 **대리보충**¹⁴⁾ 즉, 상보적 기능을 한다. 그리고 그 상보성은 전이불가능한 문화적 전이의 수행 과정에서 감지되는 이질적 요소의 시초(혹은 맹아萌芽)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 현대적인 것(being contemporary)들이 근대성의 분열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라면, 커뮤니티댄스의 현대(혹은 동시대)성의 의미 작용(소통)에서 탈근대성은 위조된 인류평등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에 은폐된 사이 공간의 탐색이고 제시이다. 결국, 커뮤니티댄스는 동일한 시간속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평등주의나, 동일한 보편적 공간속의 다른 문화적 시간성을 내포한 문화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는 체계를 가진 무용이다. 지금, 다원주의는 차이성을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국가적 기호로 작용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뜻을 지닌 용어로는 **Kristeva, J.**의 ‘동일시의 상실’ **Fanon, F.**의 ‘미결정성’ 그리고 **Deleuz, J.**의 재영토화, 초코드화 개념을 통해 다원주의의 사이(혹은 은폐, 그림자)공간이 해석되고 있다. 초월적 기표나 불변의 원리 등의 보편성에서의 소수 담론을, 커뮤니티댄스에서는 탈근대성 즉 차이의 동시대성¹⁵⁾으로 본다.

문화적 의미작용의 ‘불안정성’... 그것은 항상 이야기하는 행위가 부가된 동시대성contemporaneous이다. 현재의 행위란 그 행위의 각각의 발생을 내가 들은 것-과거 -과 당신이 들을 것- 미래-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일시적인 시간성 속에 정렬시킨 것이다(Lyotard, J.F. trans, 1984:22).

결국, 커뮤니티댄스에서 말하는 동시대성(contemporaneity)은 현재 속의 과거의 계기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공시적 동시대성이라기 보다는 이질적인 동시대성이다. 따라서 문화적 차이는 곧 동일성의 정체성 형식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것은 곧, 문화의 차이를 서로 다른 문화들의 대립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실천의 차별성과 그 효과로 보는 것으로서, 커뮤니티댄스에서는 공동체성의 인식 체제나 실천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관찰된다.

의사 소통의 체제를 사회화 하는 일은 소통하는 사람들의 평등이라기보다는 소통되는 것의 평등을 말한다. 결국 문화 습득(코드화 또는 외국어 학습 등)

¹⁴⁾ Derrida J. 의 대리보충(supplementarity)개념으로 기술(techne), 이미지, 표상, 관습 등이 본질을 보충하는 것으로 time lack 과 time lag으로도 설명되는데 “대리보충의 힘은 불확실하게 흘러가는 우리의 동시대성을 역사의 기호들로 전환시키면서 시간, 항목, 전통을 재 조정”(H. Bhabha1994, 역, 2002 : 337)하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¹⁵⁾ 시간의 동시대성과 비교 개념

이 전제 조건이 되는 소통하는 사람들의 평등이 한 방향으로의 문화적 변화나 학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소통되는 것들의 평등이란 복잡한 문화 변동의 의미 작용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대칭적 관계(네트워크)에서의 문화전이(transculture)를 전제로 한 유동적 네트워크 형성이다.

단순히 존재나 현상에 대한 관념적 인식과 이해가 아니라, 주관적으로 관찰하는 과정으로서의 공동체적 문화전이는, 의미를 ‘찾기’보다 ‘발견’¹⁶⁾하려는 자발성(문화적 실천 행위)을 맹아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 지식과 경험에 대한 존중(혹은 자존감)을 요소로 한다. 문화적 실천행위가 Foucault, M.(1977)의 이론에서는 주변적 요소를 해방시키고 인간 자신의 주권을 증대 시키는 의미로 제시된 용어로 시선(look)과 비교 개념인 계보학적 응시(genealogical gaze)의 설명에서 유사 개념을 찾을 수 있다. 산업화가 가지고 온 노동과 대량문화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기존질서에 대립하는 힘, Marcuse의 용어로는 ‘부정하는 힘’과 ‘불화하는 성격이 박탈’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문화적 실천행위의 자발성과 그 맥락이 유사하다. 결국, 문화의 동질화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자발성은 ‘위대한 거절’¹⁷⁾의 의미인 것이다.

존재와 인식에 대한 보편성과 단일성에 대하여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그리고 오리엔탈리즘 등의 시대 의식에서 제기된 것은, 산업화 그리고 도시화 이후 대량문화(혹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의 사회적 작용¹⁸⁾이었다. 그러나 결국, 근대성(또는 모더니즘)과 엘리트주의에 대한 민주주의적 공격이라는 포스트모더니즘도, 문제의 구조보다는 문제의 효과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라는 비난-문화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받았다. 다양성에 근거한 다문화주의에 결핍된, 혼성성(hybridity)은 상호국가적인 문화에 있는 사이 공간(in-between 혹은 상호inter의 공간)같은 경계의 공간을 탐색함으로써 발견되며, 혼성성의 작용은 양극성을 벗어나, 우리가 자아의 타자들로 나타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사이 공간의 발견은 Mignolo가 주장하는 경계적 사유와 같이 보편성과 단일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재성으로 한다.

성찰은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시각을 자기외부에 두고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관계속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명상은 현재의 공간을 벗어나는 정신적 탈옥입니다(신영복, 2015:72, 303).

보편성과 단일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결국, 그것이 경계적 사유로 표현되던, 혹은 발견이나 거부와 같은 실천태도로 나타내 건에 상관없이, 결국 비

¹⁶⁾ 찾기가 있는 것(혹은 이전의 의미)을 기억해 내는 것이라면 발견은 가려진 것(이전의 의미에서 결핍된 것)을 새롭게 발견해 내는 것.

¹⁷⁾ Adorno가 『The schema of mass culture』에서 언급.

¹⁸⁾ Adorno의 용어로 문화적 동질성과 예측 가능성으로 인해 균중the mass들이 현재의 한계 이상을 생각하지 않도록 조장한다는 주장.

교적 사유방식을 통한 인식이다. 학문의 대상이 개념에서 텍스트로 옮겨지는 이 시대, 의사소통 미디어의 의미 체제가 관계(네트워크)로 부상되고 있는 반면, 기존의 언어와 문자는 네트워크 생성의 한계성(일방성 혹은 한방향성) 때문에 문화에서 그 위치가 변동 중이다.

언어를 지배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언어를 욕망의 대상으로 구축한다는 의미가 된다. 식민지에서 교육과 리터러시는 제국의 모델과 역사에 기보를 두기 때문이다”(Mignolo, Walter D. 2000, 역, 2013: 422).

지식과 역사가 문자로 기록되는 단일 구조에서 무용은 문자로 변환되어 기록되었다. 그리고 학문의 영역에서 문자로 기록된 무용의 역사는 감상과 비평으로 소통 체제를 형성하였다. 문자 미디어를 통해 소통하는 무용은 변환되는 그 문자의 위치에 따라 존재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의미도 단일 체제에서 통일된 코드로 기록된다.

공동가치를 뒷받침하는 감정은 대개 특수한 구조에서 유기체가 천성적으로 가지고있는 성향의 발로가 아니다. 감정은 일반적으로 학습되고 획득된다. 더구나 행위적 지향에서 감정의 역할은 주로 인지되고 적용되는 문화적 대상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내면화된 문화유형으로의 역할이다. 감정은 행위자 자신의 인격 체계 구조의 일부이다. 소위 감정 또는 기치 태도는 인격의 참된 욕구 성향이다(Parsons, T., 1951: 41-2).

개인적 욕구(needs)와 사회적 요구(demand) 사이의 갈등이 욕망(desier)을 생성한다는 Lacan, J.의 배치 이론을 배경으로 하면, 감정은 개인의 사회화된 욕구로 감정 혹은 사회화된 욕구는 공동체성의 요인이다.

오늘의 무용을 문화적 위치로 인식하는 일은 텍스트로 존재하는 무용의 다양한 소통 방식 즉, 의미작용 체제를 발견하는 일이다. 개인적 감각을 사회적 감정과 연결하고, 역사적으로 은폐된 체제에서의 의미작용을 발견하는 초학문적이고, 탈장르적인 문화적 실천행위의 소통 미디어인 무용은 관계(네트워크 형성)에서 의미가 생성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구조에서 무용 텍스트를 읽기 위해서는,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들의 경계를 인식하는 초국가적 사유와, 언어와 비언어들 사이 그리고 지식과 사유들 사이, 기록과 기억들 사이의 대칭적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의사소통 미디어로서의 커뮤니티댄스는 매체나 도구적 특성, 혹은 의사표현과 소통 미디어의 기능적 특성을 넘어, 관계와 작용관계에 소통 미디어로서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종이에 기록된 기호보다는 몸매 새겨진 기호와 기억에 그리고 언어에 기울어 있다.
... 하이데거(1957)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말을 하곤 했다. 리처드 로티가 한말은 19세기

의 철학의 패러다임 개념이 관념이라면 20세기 철학의 그것은 텍스트이다 (Mignolo, Walter D. 2000, 역, 2013: 416, 419).

의사표현의 확장이 문화인류학적 미디어론을 부각시켰다는 논리에서 각각의 미디어와 그 소통 체제는 상보적 관계에서 의미작용을 한다. 문자 읽기(reading)가 언어의 사이 공간에 대한 인식 없이 진행 되고, 더욱이 언어를 지배의 도구로 이용한 국가나 지역 공동체의 역사에서 무용을 비롯한 예술의 기록물들은 원본과 재현의 관계로만 의미가 부여되어 예술이 곧 테크닉이라는 시각이 형성 되었다. 그와 비견하여, 언어와 이미지, 종교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의사표현의 소통 체제에서 상보적으로 작용하는 텍스트 읽기(literacy)는 은폐된 체제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용과 세계와의 관계(net-work)에서 작용하는 의미들을 읽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혹은 literacy)를 위한 교육을 무엇이라 이름 붙이든지-인문교육, 교양교육, 전인교육, 예술교육 등-내용은 정신적 자질이다. 즉 무엇을 추구해야하는지 생각하는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실천(혹은 삶) 과정에서, 개인의 문제와 공공의 문제를 전이하고,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작용하는 많은 의미들을 단순화하는, 상상과 추상의 능력이 정신적 자질이다.

시서화詩書畫는 보다 높은 차원의 인식 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숫자로서 세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 수준의 우리들의 세계입니다...양심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간학일 뿐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사회를 아울러 포용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능력, 즉 문사철文史哲의 추상력과 시서화의 상상력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신영복, 2015: 37, 52, 405).

결국, 의사소통으로서의 커뮤니티댄스가 literacy의 텍스트로 작용하는 네트워크에서는, 인식의 심화 작용이나 다양성(plurality)에 대한 지식 보다는 차이(difference)-이미지와 기호, 축적과 부, 현존과 보충의 경계에서의 갈등 현장-의 발견이 곧 의미작용의 맹아가 된다. 그리고 현장 즉 관계에서의 차이는 성찰을 통해 발견 가능한 것이므로, 커뮤니티댄스가 의사소통의 미디어로 작용하는 데에는 경계적 사유를 위한 정신적 자질이 요구된다. 따라서 커뮤니티댄스는 과거의 결정과 현재의 사건, 혹은 욕망과 정보사이의 연결 즉 그러한 갈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소수 담론의 공간이자 동시대적 공동체성의 발현이다.

커뮤니티댄스가 소통 미디어로 작용하는 것은 갈등의 관계에서 소수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동시대 공동체성으로 의미를 생성한다.

탈 장르적 예술기의 무용이라 할 수 있는 커뮤니티댄스를 문화적 위치에서 인식하는 일은 이데올로기적 텍스트로 존재하는 무용의 의미 체계를 발견하는 일이다. 개인적 감각을 사회적 감정과 연결하고, 역사적으로 은폐된 체제에서의 의미 작용을 발견하는 일은 현전하는 무용을 초학문적이고, 탈장르적인 문화적 실천행위인 의사소통 미디어로 볼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커뮤니티댄스는 정형화된 틀에서 주어진 대답들을 요구하는 문제 설정(probematic)이나 문제 제기(문제)에 대하여 대답이나 효과를 제안하는 도구로서의 무용이라기보다, 오히려 문제 설정을 해체하여 정형화되고, 제도화 되어가는 문화적 실천행위들 이면의 소수 담론을 공동체성으로 하는 동시대 공동체무용이다.

커뮤니티댄스의 소통 미디어로의 작용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둔 본 연구는, 커뮤니티댄스의 소통 미디어로서의 정체성과 의미작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커뮤니티댄스가 의미를 생성하는 체제의 중심에 몸이 있고 결국, 몸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무용은 사유 혹은 실천 의지가 행위를 통해 표명되는 체제임으로, 커뮤니티댄스는 대화를 시도하는 문화 텍스트로 의사소통의 미디어로 작용한다.

커뮤니티댄스의 소통 체제는 소통하는 사람들의 평등이라기보다는 소통되는 것의 평등을 전제로 구축된다. 소통하는 사람들의 평등이 한 방향으로의 변화나 학습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소통되는 것들의 평등이란 대칭적 관계(네트워크)의 유동적 네트워크의 의미 체계를 말한다.

커뮤니티댄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수께끼로서의 텍스트가 아니라 복합적 의미구조를 지닌 텍스트로서, 무엇을 찾아내거나 제시하는 성취나 효과의 도구로 작용하기 보다는, 숨겨지고 은폐되어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것들의 의미 작용 과정을 각각의 위치에서 발견하여 읽어지게 하는 체제에서 작용한다.

커뮤니티댄스는 과거의 결정과 현재의 사건, 혹은 욕망과 정보사이의 연결 즉 그러한 갈등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소수 담론의 공간이자 동시대 공동체성의 발현이다. 커뮤니티댄스가 소통 미디어로 작용하는 것은 갈등의 관계에서 소수 담론이 생성되는 과정이며 그것은 동시대 공동체성으로 의미를 생성한다.

참고문헌

- 신영복(2105), **담론**, 서울 : 돌베개.
- Bhabha, Homi K.(1994), *The location of culture*, 나병철(역, 2002, 2014), **문화의 위치**, 서울 : 소명출판.
- Fauser, M.(2003), *Einführung in der kulturwissenschaft*, 김연순(역, 2008), **문화학의 이해**, 서울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Leavis, F. R. & Thomson, D.(1977), *Culture and environment*,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Lytard J. F., Benninton, G.&Massumi, B.(trans, 1984), *The postmodern condition*, Manchester :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ignolo, Walter D.(2000), *Local history/Global designen*, 이성훈(역, 2013), **로컬히스토리/글로벌디자인**, 서울: 에코리브르.
- Mills, Charles W.(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강희경, 이해찬(역, 2004), **사회학적 상상력**, 서울 : 돌베개.
- Parsons, T.(1951), *The social system*, Glenco, Illinois: The Free Press.
- Pinker, S.(2004), "The problem of conciousness" Seed Media Group(2010), *Science is culture*, 이창희(역, 2013), **사이언스이즈컬처**, 서울 : 동아시야.
- Rancière, J.(2000), *Le partage du sensible*, 오윤성(역, 2008), **감성의 분할**, 서울 : 도서출판b.
- Story, J.(1993), *An introductory guide to culture theory and popular culture*, 박모(역, 1999), **문화연구와 문화이론**, 서울 : 현실문화연구.